

# 지방정부의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허만형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6년간(2008~2013) 통계자료를 통합(pooled) 방식으로 정리하여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EQ-5D,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그리고 스트레스 등 4가지 삶의 질의 단면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보화, 지역경제, 지역복지, 행정역량, 그리고 지역문화체육환경 영역에서 선택한 10개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삶의 질의 4가지 단면마다 고유의 영향 요인이 발견되었지만, 전 단면에 다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었다. 몇몇 변수만이 두 가지 정도의 삶의 질의 단면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변수는 한 단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단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기도 했다. 삶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GRDP와 복지예산 비중이었다. 그러나 정부역량 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의 수와 재정자립도는 삶의 질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문주제어: 지방정부; 삶의 질; 행복

## I. 서론

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삶의 질 개선이다(Costanza et al., 2008). 정책은 사회 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행복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Rossi, Lipsey, & Freeman, 2004)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 삶의 질에 관한 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Young & Kaczmarek, 2000).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등 대외정책에 비중을 두고, 지방정부는 복지, 환경, 문화체육 등 국내정책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광역 및 기초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제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1999년에서 2008년까지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년에서 2013년까지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sup>1)</sup> 지

1)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제정되어 2008년에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다. 이 특별법은 다시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대체되었

방정부는 또한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유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고유사무로 지칭되는 이 사무는 복지, 생활환경, 문화체육과 같은 삶의 질과 연결되어 있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단체)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는 지역의 삶의 질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에 활용해야 하지만 통계청은 2008년에야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과 관련 자료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EQ-5D가 대표적이다. EQ-5D는 삶의 질을 운동, 자리관리, 일상활동, 통증/불편감, 그리고 우울/불안과 같은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로서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 주관적 건강수준, 우울감 경험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을 관리하기 시작한 시기도 2008년부터였다. 그러나 문경주(2014)의 연구 이외에 이같은 삶의 질 관련 자료를 기초로 광역단체 사이의 비교연구가 실시된 바는 거의 없다. 미국은 50개 주를 대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Cogburn & Schneider, 2003)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sup>2)</sup>

삶의 질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 의미한다. 대체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의미하지만, 집합적 관점에서 활용할 경우 지역단위의 삶의 질로 활용되기도 한다. 개인 단위이든 지역 단위이든 삶의 질의 개념에는 물질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동시에 포함된다. 통계청에서 지역 통계의 항목으로 관리하는 EQ-5D,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및 스트레스 지표는 모두 지역 단위 지표이다.<sup>3)</sup> 본 연구는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6년간 자료를 통합(pooled)방식으로 정리하여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변수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는 어떤 정책을 채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삶의 질의 의미와 영향요인 선행연구

### 1. 삶의 질의 의미와 척도

삶의 질은 복합 개념(구교준 외, 2014)으로서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삶의 질은 객관적 척도로 제시할 수 있고 주관적 인식 지표로도 제시할 수 있어(Costanza et al., 2007) 그 구성요소를 탐색한 결과 92개에 이른다는 보고(Ventegodt et al., 2003)가 나올 정도로 복합성이 강하다. 삶의 질은 개인의 가치관이나 철학과 관계가 있고, 이것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삶의 질은 이처럼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물질적·경제적 가치 영역과 정신적·비경제적

다. 이에 따라 지방이양추진 관련 위원회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로 변천했다.

2) 미국에서 각 주 사이의 삶의 질을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는 “Most Livable State” Index와 Camelot Index이다(Cogburn & Schneider,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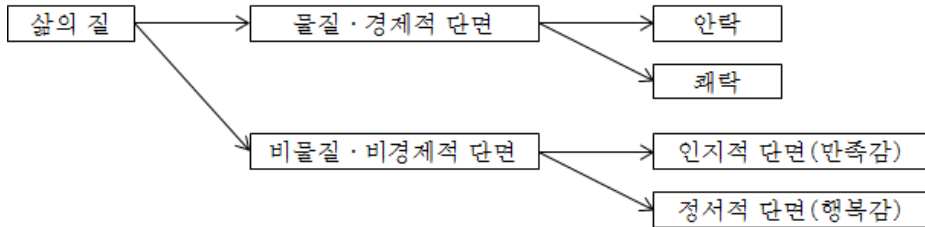
3) 지역단위 삶의 질 지표는 통계청에서 지역주민 대상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단위로 산정한 평균이나 빈도율 같은 통계값을 뜻한다. 지역단위 지표도 생산 원자료는 개인 단위의 값이다.

가치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두 요소 중 어느 한쪽이 배제될 수 없다. 물질적·경제적 가치 영역에는 안락(comfort)과 쾌락(pleasure) 같은 삶의 질의 단면이 있고, 비물질적·정신적 가치 영역에서는 행복(happiness)이나 만족감(satisfaction) 같은 삶의 질의 단면이 있다(고명철·최상옥, 2012). 요약하면 삶의 질은 이 두 단면의 조합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정신적 단면이 물질적 단면보다 더 강조된다(Flanagan, 1982)는 특성이 있다.

삶의 질을 정신적 단면에서 접근하더라도 행복이나 만족감으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복합 개념이다. 이 두 요소도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 행복감(happiness)은 정서적 차원의 삶의 질이고(Shin & Johnson, 1978), 만족감(satisfaction)은 인지적 차원의 삶의 질이다(Sharon, 1986). 삶의 질의 중심에는 정서적으로 느끼는 행복감과 인지활동의 결과로 느끼는 만족감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Shin & Johnson, 1978; Veenhoven, 2006).

따라서 삶의 질의 의미는 복합적이지만 단순화시키면 <그림 1>처럼 접근 통로를 정리할 수 있다. 물질적·경제적 단면에서 안락과 쾌락으로 연결되고, 비물질·비경제적 단면에서 만족감과 행복감 같은 단면으로 연결된다. 최대한으로 단순화시키면 삶의 질은 이 네 가지 단면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관련 문헌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림 1) 삶의 질의 단면에 대한 분류



삶의 질의 개념과 연결된 단면의 다양성 못지않게 삶의 질의 척도도 다양하다. Veenhoven(2006)은 삶의 질의 척도에 대해 점수이론(set-point theory), 비교이론(comparison theory), 영향이론(affect theory)으로 구분하고 있다. 점수이론은 삶의 질에 관하여 누가 어느 정도로 행복감을 느끼는지에 대해 점수로 표시하는 척도로서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삶의 질을 행복으로 해석하고 있는 Shin & Johnson(1978)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비교이론은 최적의 삶의 질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비해 현재의 행복감을 수치로 표시하고자 하는 합리적 접근법을 의미한다. 주관적 성격을 가진 삶의 질을 객관화하려는 입장의 접근법이다. 끝으로 영향이론은 삶의 질은 욕구충족을 반영하는 감정적 경험으로서 주관적 개념이라는 입장의 이론이다.

Diener & Suh(1997)도 삶의 질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Veenhoven(2006)과는 시각이 다르다. Diener & Suh(1997)는 사회지표의 관점, 주관적인 개인의 복리라는 관점, 그리고 일종의 경제지표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사회지표라는 관점에서 보면 삶의 질은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의 일종이다. 대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찰 지역 내의 다양한 자료를 가공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Gagerty et al., 2001). 이 사회지표는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주관적 차원의 삶의 질은 개인의 경험에 입각한 척도이다. 개인이 생활주변과 사회에 대한 주관적 가치판단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삶의 질의 척도이다. 끝으로 경제지표 중 하나로 삶의 질이다. 개인이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선택하여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대체로 물질적 단면을 반영하고 있다.

특정 인구집단 및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척도는 하나의 이론이나 접근법을 활용하지 않고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에 관한 사회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Economist(2005)는 물질적 복지(material wellbeing), 건강, 정치적 안정과 안보, 가족생활(family life), 지역사회생활(community life), 기후와 지리(climate and geography), 직업안정(job security),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그리고 양성평등(gender equality)과 같은 항목을 중심으로 지표를 개발하여 삶의 질을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이 지표는 사회경제적 만족감에 초점을 맞춘 지표라는 특징을 가진다.

심리적·사회학적 관점에 초점을 맞춘 지표도 활용되고 있다. 이 지표 역시 일종의 사회심리 지표이다. Mauceri, Licciardello, & Di Marco(2014)는 성별, 연령, 결혼상태 등과 같은 개인정보, 과거, 현재 및 미래에 대한 시차적 심리만족 상태, 세계보건기구의 삶의 질 척도(WHOQol-Bref), 자기효능감(self-efficacy), 그리고 성적 만족(sexual and affective life)을 기초로 지표를 구성하여 특정인구집단을 비교하는데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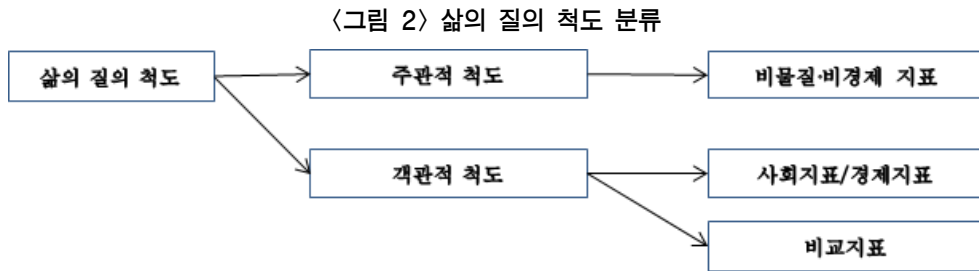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1997)는 육체적·정신적 건강생활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WHOQol-Bref로 지칭되기도 하는 이 지표는 육체적 건강(physical health), 심리적 건강(psychological health), 자유수준(level of independence), 사회관계(social relationships), 환경(environment), 정신적/종교적/개인적 신념(spirituality/religion/person beliefs) 등 6개 항목으로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국가간, 지방역간 비교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지표는 EQ-5D이다(Kind et al., 1998). 이 지표는 운동능력(mobility), 자리관리(self-care), 일상활동(usual activities: 일, 공부, 가사일, 가족 또는 여가활동), 통증/불편감(pain/discomfort), 불안/우울(anxiety/depression)을 종합한 지표이다. 건강 관련 항목이 포함되지만 기본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의 성격이 더 강하다. 다섯 가지 영역마다 전혀 문제없음, 다소 문제 있음, 많은 문제 있음 중 하나를 체크하도록 하여 점수화한다(EuroQol Group, 2009).

건강관련 삶의 질에 대한 지표도 활용되고 있다. Guyatt, Feeny, & Patrick (1993)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일반항목과 특정 질병과 관련된 특수항목으로 구분하여 건강관련 삶의 질의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심리상태를 활용하여 개발한 지표가 삶의 질의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스트레스와 삶의 질을 연결시켜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Masthoff et al., 2006)도 있고, 우울감을 삶의 질과 연결시켜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Daly et al., 2010)도 있다.

삶의 질 척도는 다양하지만 <그림 2>처럼 먼저 주관적 척도와 객관적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복리에 대한 개인의 판단을 근거한 지표로서 삶의 비물질·비경제 단면을 반영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한 행복, 만족, 스트레스, 혹은 건강척도가 여기에 포함된다. 후자는 경제사회적 단

면 중에서 삶의 질과 연결될 수 있는 항목을 지표 방식으로 정리한 척도와 건강이나 심리상태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발된 척도로 구분할 수 있다. 지니계수나 소득10분위 배율 등이 대표적 경제사회적 지표이고, EQ-5D 같은 지표는 비교지표에 속한다.



삶의 질은 개념적으로도 다면적이고, 척도도 다면적이지만 대한 모든 단면을 다 고려한 수준의 연구는 없다. 비물질·비경제 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의 정서적·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하고, 사회지표를 활용하여 삶의 질의 삶의 안락과 쾌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삶의 질에 관한 한 객관적 지표가 주관적 지표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개념에서 보듯이 삶의 질은 객관적 성격보다도 주관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 2. 삶의 질 영향요인 선행연구

삶의 질의 영향요인 연구는 그 대상이 개인에 국한되지는 않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대상(Cogburn & Schneider, 2003; Zorondo-Rodriguez et al., 2014)인 경우도 있었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Diener & Diener, 1995)도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한국의 광역단체나 미국의 주정부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Cogburn & Schneider, 2003; Alvarez-Diaz et al., 2006)도 있었으며,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Gyourko & Tracy, 1991; Wish, 1986)도 있었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사회지표나 경제지표가 삶의 질의 비교지표로 활용되기도 하였지만 EQ-5D처럼 삶의 질의 척도로 개발된 지표가 활용(Burckhardt et al., 2003)되기도 하였다.

삶의 질의 단면이 다양하듯 삶의 질 삶의 질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된 삶의 질의 단면도 다양했다. 그중 EQ-5D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각국의 사회발전의 척도로 GDP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대안으로서 삶의 질을 평가하는 방안이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가 EQ-5D의 개발이었다(European Commission, 2009; Bache, 2013). 비물질·비경제적 삶의 질의 단면으로서 행복감이 종속변수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행복의 정치학(The Politics of Happiness)을 주제로 주정부 단위의 행복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 2006). 또한 행복감 그 자체보다 행복감의 반대방향에 있는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도 매우 중요한 종속변수로 활용되고 있었다. 주관적 건강 역시 삶의 질의 중요한 단면으로서 널리 활용(Anderson et al., 1993; Skevington et al., 2004)되고 있었다.

삶의 질의 영향요인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다. 인터넷이 만든 사회변화가 삶

의 질 연구자들의 관심사였다. 인터넷 이용이 가족간의 소통저하 현상을 초래하거나, 제한된 일부 집단간의 소통은 강화하고 다양한 집단간의 소통저하 현상을 초래하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1998, Kraut et al., 1998), 인터넷 이용이 우울감 해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LaRose, Eastin, & Gregg, 2001)도 있었다. 인터넷의 용처를 분류한 후 그 이용율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Leung & Lee, 2005)도 있었다. 그러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역 단위로 인터넷 이용율을 조사한 후 이 이용율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을 삶의 질의 단위로 설정하고 연구한 경우에는 인구학적 요인, 즉 건강, 성별, 결혼, 가족 관계, 교육, 직업과 소득 등이 개인의 삶의 질이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Diener & Diener, 1995; Ram 1982)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처럼 지역을 단위로 설정하고 접근한 연구에서는 지역의 경제적 부의 척도로서 1인당 지역소득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Diener & Diener, 1995; Diener & Suh, 1997; Becker, Philipson, & Soares, 2003)가 있었다. 그러나 집합적 변수로서 지역내 총생산(GRDP)을 독립 변수로 활용한 삶의 질 연구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의 경제적 변수 중 하나로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시장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다만 유사 변수로서 실업율과 삶의 질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Deller, et al., 2001; Alvarez-Diaz, Gonzalez, & Radcliff, 2006)나 직업 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Law, 2002)는 발견되었다.

복지는 삶의 질의 중요한 변수이며, 복지국가는 삶의 질이 보장된 국가로 인식되어 왔지만 그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연구(Veenhoven, 2000)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보장비 지출 규모를 복지국가의 척도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복지지출이 삶의 질의 긍정적 영향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Bjørnskov, Dreher, & Fischer, 2007)도 복지비 지출 그 자체만으로 삶의 질이 개선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수준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 중 하나로서 복지시설의 수도 삶의 질의 영향요인 분석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변수가 삶의 질의 연구에 활용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았다.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이나 경제학에 비해 그 역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고객만족을 한 축으로 하는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마저도 효율성 논리 매몰되어(이현국·이민아, 2014) 이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공공관리는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 작은 정부를 강조해왔지만 정부의 규모를 결정하는 변수로서 공무원의 수와 예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작은 정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jørnskov, Dreher, & Fischer, 2007).

지역의 편의시설(amenities) 중 한 영역을 차지하는 지역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규모도 선행연구에서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지역의 편의시설과 삶의 질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변수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사실이 나타났다(Deller et al., 2001). Gyourko와 Joseph(1991)의 연구에서도 편의시설 중에서 레크리에이션 시설은 삶의 질의

중요한 변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문화시설, 체육시설은 삶의 질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후 삶의 질 연구가 시작되었다. 복지와 환경 관련 정책변화를 삶의 질의 정책으로 간주한 연구(김도희, 2002)도 있었다. 노인 대상 삶의 질 연구(한석태, 2008)에서는 주관적 변수가 객관적 변수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역주민 대상의 또 다른 연구(이지은·이재완, 2014)에서도 주관적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건강과 교육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삶의 질의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 연구대상은 개인,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수준의 지역, 그리고 국가 대상으로 하는 연구 등 다양했다. 삶의 질의 최소단위는 개인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만 기초단체 수준이나 광역단체 수준의 지역도 삶의 질의 연구단위가 되며, 국가간 비교를 전제로 할 경우 국가도 삶의 질의 연구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지역을 단위로 하는 삶의 질의 영향요인 연구에서도 인구학적 변인에서뿐만 아니라, GRDP와 같은 경제적 변인, 환경이나 복지 등 사회적 변인, 공무원이나 재정자립도와 같은 행·재정적 변인 등이 모두 독립변수로 활용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전국의 16개 광역단체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연구할 경우 심리학적, 혹은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삶의 질 결정요인을 탐색할 수밖에 없지만 지역을 대상으로 하면 지역의 경제적 배경, 정책방향, 지역사회복지 수준, 또한 환경 및 문화시설 기반을 중심으로 삶의 질 영향요인 탐색이 가능하다. 연구대상이 광역단체여서 보다 거시적이며 정책적 차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삶의 질 관련 자료를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관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는 2008년부터는 광역단체별 EQ-5D를 비롯하여 삶의 질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GRDP를 비롯한 지역경제 자료, 사회복지 예산을 비롯한 사회복지 자료, 공원이나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관련 자료, 그리고 공무원의 수와 같은 행·재정자료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통계포털로부터 필요한 지역통계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케이스 합치기 방식으로 통합(pooled)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삶의 질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삶의 질 연구에서 모든 단면을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 단면과 주관적 단면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영향요인을 조화로운 시각에서 파악(Costanza et al., 2007)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EQ-5D,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우울감, 스트레스 인지율과 같은 4개 단면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EQ-5D는 기본적인 삶의 질을 설명하는 일종의 객관적 지표이기 때문에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EQ-5D는 건강관련 지표로 분류(질병관리본부, 2011)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삶의 요건의 구비수준에 대한 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EQ-5D가 노인이나 환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건강관련 지표이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적 삶과 관련된 지표로 활용된다. 삶의 질 관련 표준화 지표이기 때문에 지역간, 혹은 국가간 비교에 널리 활용된다.

삶의 질의 주관적 지표에 해당되는 변수로 주관적 건강수준은 육체적 건강을 바탕으로 구성된 삶의 질의 지표이기 때문에 채택하였다.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정신적 건강을 바탕으로 구성된 삶의 질의 지표이지만 행복감이나 만족감의 반대편에 있는 단면이기도 하다. 행복감과 만족감은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지표를 역으로 해석하면 유추가능할 수 있어 종속변수로 채택하였다. 물질적 안락이나 쾌락과 연결된 지표는 본 연구에서는 활용할 수 없었다. 광역단체가 연구대상이기 때문에 관련된 통계자료나 대체 가능한 유사 자료 또한 없었다.

<표 1>에서와 같이 EQ-5D는 삶의 질을 5가지 차원의 기술체계를 종합한 지표로서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이 높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주관적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응답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우울감 경험율은 최근 1년(365일) 동안 연속적으로 2주(14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인지율은 평소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을 의미한다(통계청, 2014).

다중회귀분석의 독립변수는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영향 영역을 종합한 정보화, 지역경제, 지역복지, 행·재정, 문화체육 등 5개 영역에서 10개 변수 선별하여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특성은 상기 5개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선행연구(Gabriel et al., 2003)에서도 지역을 연구단위로 할 경우 지역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택하고 있었다. 또한 5개 영역에서 독립변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정보화 영역에서는 인터넷이용률이 유일한 통계자료였다. 지역경제 영역에서는 GRPD와 경제활동참가율을 선정하였다. 지역복지 영역에서는 복지예산비중과 인구십만명당복지시설의 수가 대표 변수로 판단되었다. 행·재정 영역에서는 재정자립도와 인구천명당 공무원수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문화체육 영역에서는 천명당 도시공원면적, 십만명당 문화시설수와 십만명당 체육시설수와 같은 변수가 패널자료로 관리되고 있는 변수들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종속변수 4개와 10개 독립변수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종합하는 방식으로 분석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EQ-5D에 영향



을 미치는 변수와 나머지 세 개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광역단체 수준에서 주관적·객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6년간 통합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autoregression), 혹은 계열상관(serial correlation)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 진단을 위하여 더빈왓슨(Durbin-Watson)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기상관 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높으면 최우수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분산성(teteroscedasticity) 문제의 확인을 위해 브로슈-파간 검사(Breusch-Pagan Test)와 화이트 검사(White Test)를 실시하였다.<sup>4)</sup> 또한 다중공선성 문제도 진단하였다.

〈표 1〉 삶의 질 영향요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변수		내용	
종속변수	EQ-5D	1에 가까울수록 삶의 질의 수준이 높음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매우 좋음” 또는 “좋음” 응답자의 비율	
	우울감 경험율	1년 중 연속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 있을 정도의 우울감 경험자 비율	
	스트레스 인지율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	
독립변수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	해당지역 6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비율
	지역 경제	GRPD	시도별 GRDP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 비율
	복지	복지예산비중	일반회계 중 복지예산 항목의 비중
		십만명당복지시설수	인구십만명당 복지시설 수
	행·재정	재정자립도	지방예산 중 지방세·세외수입 백분율
		천명당 공무원수	인구천명당 지방 공무원 정원
	문화 체육	천명당도시공원면적	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면적
		십만당문화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십만당체육시설수		인구 십만명당 체육시설 수	

## IV. 분석결과

### 1. 광역단체의 삶의 질의 수준

삶의 질의 척도에 따라 지역별 순위가 달랐다. EQ-5D로 보면 충남과 전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대전과 울산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로 보면 인천과 경북이 낮고, 대전과 제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우울감 경험율을 보면 울산이 가장 낮고, 서울이 가장 높았다.

4) 풀(pooled) 자료 활용 시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패널분석기법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이 문제가 없으면 다중회귀분석이 활용되기도 한다(Greene, 2011).

스트레스 발생 가능성을 보면 전남이 가장 낮았고, 인천이 가장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대전과 울산은 EQ-5D와 주관적 건강인지수준은 높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비교적 낮은 지역이었으며, 인천은 스트레스가 높고 서울은 우울감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의 EQ-5D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그 평균이 0.95로서 변함이 없었다. 최소값을 보면 0.94-0.94-0.94-0.93-0.94로서 2011년도에 낮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대값은 0.97-0.97-0.97-0.96-0.97로 역시 2011년도에 낮았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 최소값의 경우 5년 사이에 충남과 전남이 4차례, 강원 3차례, 전북, 경북, 제주 2차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역시는 최소값에 한 차례도 진입하지 않았다. 최대값을 보면 대전이 4차례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차례, 그리고 서울이 한 차례 진입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경우 50.0-48.3-49.1-47.6-45.6-45.9로서 지난 6년 사이에 하강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 최소값은 43.3-42.1-43.7-41.4-41.5-42.3으로서 2011년과 2012년에 최저치를 기록한 후 약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최대값의 경우 57.6-53.8-54.9-59.0-50.6-51.5로서 낮아지는 추세이며, 2012년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소값에는 인천과 경북이 2차례, 울산, 경남, 제주가 1차례씩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최대값에는 대전과 제주가 2차례, 충북과 전남이 각기 한 차례씩 최소값을 경험하였다.

우울감 경험율의 경우 평균은 7.9-7.4-5.4-4.8-5.1-5.7로서 2008년에 비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연도별 최소값을 보면 5.4-5.3-4.0-3.3-3.0-3.6으로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다가 2013년에 약간 높아지고 있었다. 최대값을 보아도 9.3-9.9-6.8-7.0-6.8-7.7로서 2012년에 최저였다가 2013년 다시 약간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최소값에는 울산이 5차례로 가장 많았고, 최대값에는 서울이 3차례로 가장 많았으며, 인천, 경북, 제주가 각기 1차례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스트레스 발생률을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값이 28.2-27.9-27.0-27.5-27.6-26.6으로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연도별 최소값의 경우 21.5-21.9-23.0-22.5-23.6-20.0으로서 2012년까지 높아지다가 그 후에 낮아지고 있었다. 최대값의 경우 31.4-33.0-30.6-31.3-31.5-31.2로서 2009년에 특이 높은 현상을 보였다.

최소값에 진입한 광역단체는 전남이 4차례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울산이 각 한 차례씩 최소값을 기록하였다. 최대값의 경우 인천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4차례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전북과 제주가 각각 한차례씩 최대값을 기록하였다. 지난 6년간 전남은 가장 스트레스를 덜 받는 지역이었으며, 인천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표 2〉 광역단체의 삶의 질: 평균, 최소값 및 최대값

연도	삶의 질 영역	평균	최소	최대
2008	EQ-5D	.95	.94(강원·충남·전남·경북)	.97(서울·대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50.0	43.3(울산)	57.6(전북)
	우울감 경험율	7.9	5.4(울산)	9.3(경북)
	스트레스 인지율	28.2	21.5(전남)	31.4(전북)

2009	EQ-5D	.95	.94(강원·충남·전남·제주)	.97(울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8.3	42.1(인천)	53.8(제주)
	우울감 경험율	7.4	5.3(울산)	9.9(제주)
	스트레스 인지율	27.9	21.9(전남)	33.0(제주)
2010	EQ-5D	.95	.94(강원·전남·전북·경북)	.97(대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9.1	43.7(인천, 경북)	54.9(충북·제주)
	우울감 경험율	5.4	4.0(충북)	6.8(서울)
	스트레스 인지율	27.0	23.0(전남)	30.6(인천)
2011	EQ-5D	.95	.93(충남)	.96(대전·울산)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7.6	41.4(경북)	59.0(대전)
	우울감 경험율	4.8	3.3(전남)	7.0(서울)
	스트레스 인지율	27.5	22.5(전남)	31.3(인천)
2012	EQ-5D	.95	.94(충남·전북·전남·제주)	.97(대전)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5.6	41.5(제주)	50.6(전남)
	우울감 경험율	5.1	3.0(울산)	6.8(서울)
	스트레스 인지율	27.6	23.6(경남)	31.5(인천)
2013	EQ-5D	n/a	n/a	n/a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45.9	42.3(경남)	51.5(대전)
	우울감 경험율	5.7	3.6(울산)	7.7(인천)
	스트레스 인지율	26.6	20.1(울산)	31.2(인천)

## 2. EQ-5D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 중에서 EQ-5D는 가장 널리 활용되는 지표이다. 이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표 4>의 제1모형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률과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났다. 자료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통합자료이기 때문에 자기상관(autoregression) 검정 결과 제1모형의 경우 더빈왓슨 값이 1.643으로서 자기상관 문제는 없음을 확인하였다.<sup>5)</sup> 이분산성 진단을 위해 브로슈-파간 검사(Breusch-Pagan Test), 화이트 검사(White Test)를 한 결과도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모델 2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를 제외한 모델 3과 같은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2와 모델 3에 대해서도 더빈왓슨 검증 및 화이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상관 문제가 없었다.<sup>6)</sup> 제2, 제 3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EQ-5D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인터넷 이용률(+), 지역경제 변수로서 경제활동참가율(-), 지역복지 변수로서 인구십만명당 복지시설의 수(-), 행·재정

5) 더빈왓슨표에 의하면 케이스의 수가 96개이고, 독립변수가 10개일 때 더빈왓슨값이 1.293과 2.212 사이에 위치할 경우 자기상관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6) 더빈왓슨표에서 케이스의 수가 96개이고, 독립변수가 9개일 때 이 값이 1.316에서 2.239 사이에 있으면 자기상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변수로서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 문화체육 변수로서 인구 천명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등 5개 변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하기 전후를 비교하면 인터넷 이용률 변수에 특이 사항이 발생하였다. 이 변수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제1모형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제3모형에는 EQ-5D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EQ-5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은 제2모형과 제3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즉 인터넷 이용률이나 공무원 수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변함없이 EQ-5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상황변화와 관계없이 EQ-5D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천명당 도시공원 면적이었으며, 도시공원의 많이 조성된 광역단체는 EQ-5D라는 단면의 삶의 질이 높다는 정리가 가능하다.

제2모형과 제3모형의 한쪽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기 때문에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수록 EQ-5D 지표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다는 점은 인터넷 접속 환경이 다른 지역에 비해 좋다는 것으로 범위를 약간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잘 갖추어진 인터넷 환경은 인터넷 이용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용이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종속변수인 EQ-5D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나머지 변수 3개, 즉, 경제활동 참가율, 공무원 수, 그리고 복지시설 수는 관계의 방향이 정(+)이 아니라 부(-)였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공무원 수가 많을수록, 복지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EQ-5D라는 관점에서의 삶의 질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현실을 반영한 해설일 수가 없다.

관계의 방향에 관한 특이 현상은 범죄율이 종속변수이고 순찰회수가 독립변수인 회귀분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변수의 관계는 정의 관계이다. 이 경우 순찰회수를 늘이면 범죄율이 높아진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현실적합성을 고려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위치를 바꾸어 범죄율이 높은 곳에 순찰회수를 늘인다고 해석을 한다(Jones, 1974). 같은 맥락에서 EQ-5D와 역의 관계에 있는 세 변수도 범죄율과 순찰회수와 같은 특이 현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역단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거나, 공무원 수가 많거나, 복지시설의 수가 많으면 EQ-5D 관점에서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해석하기가 어렵다. EQ-5D가 상대적으로 낮은 광역단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거나, 공무원 수를 늘이거나, 복지시설의 수를 늘이는 경향이 있다는 해석이 현실 적합성이 높을 수 있다. 특히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이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적 선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이를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예상과는 달리 10개 독립변수 중에서 5개는 EQ-5D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경제 변수로서 GRDP, 지역복지 변수로서 복지예산, 행·재정 변수로서 재정자립도, 문화체육 변수로서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수와 및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의 수는 EQ-5D 지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3〉 EQ-5D 지표의 영향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상수)	.968	23.221	.000	-	1.005	37.481	.000	-	.899	33.532	.000	-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	.001	1.172	.245	16.900	-	-	-	-	.001	4.075	.000**	7.409
지역												
GRDP	-8.744E-5	-1.017	.313	2.097	-8.695E-5	-1.009	.317	2.097	.000	-1.444	.153	2.010
경제												
경제활동참가율	-.001	-1.870	.066*	2.243	-.001	-2.197	.031**	2.122	.000	-1.191	.238	1.984
복지												
복지예산비중	-4.640E-5	-.245	.807	4.497	-6.142E-5	-.324	.747	4.477	6.395E-5	.343	.733	4.159
십만당복지시설수	-.000	-1.770	.081*	2.554	.000	-1.638	.106	2.517	-.001	-3.014	.004**	2.016
행·재정												
재정자립도	-2.661E-5	-.054	.957	3.075	2.437E-5	.552	.583	2.413	-1.01E-5	-.199	.843	3.060
천명당 공무원수	-.002	-2.126	.037**	17.805	-.003	-4.526	.000**	7.806	-	-	-	-
문화체육												
천명당도시공원면적	.000	2.689	.009**	2.035	.000	2.790	.007**	2.021	.000	2.407	.019**	2.010
십만당문화시설수	.000	.735	.465	9.651	.000	.349	.728	8.489	.000	.676	.501	9.647
십만당체육시설수	-2.479E-5	-.173	.863	8.667	.000	1.297	.199	3.044	.000	-1.309	.195	6.719
(적합도)	F=17.321, prob.=.000, R=.846 R <sup>2</sup> =.715, Adj R <sup>2</sup> =.674				F=18.992, prob.=.000, R=.842 R <sup>2</sup> =.708, Adj R <sup>2</sup> =.672				F=17.846, prob.=.000, R=.835 R <sup>2</sup> =.696, Adj R <sup>2</sup> =.657			
Durbin-Watson Value	1.643				1.588				1.795			

\*: p<0.10; \*\*: p<0.05; \*\*\* p<0.01

### 3.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응답자 개인이 스스로 판단한 건강수준을 “매우 좋음” 또는 “좋음”에 체크한 사람의 분율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이 지표가 높으면 자신의 건강이 좋다고 판단하는 인구의 비중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단위가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활용한 지표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이 아니라 광역단체 전체의 주관적 건강수준을 의미한다. 주관적 건강수준의 영향요인 분석을 위하여 <표 4>과 같이 인터넷 이용률과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모델 2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를 제외한 모델 3과 같은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Q-5D 영향요인 분석 때처럼 더빈왓슨 검사와 화이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1, 제2, 그리고 제3모형 모두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는 없었다.

분석결과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의 영향요인으로 정보화 변수로서 인터넷 이용률(+), 지역복지 변수로서 인구십만명당 복지시설 수(+), 행·재정변수로서 재정자립도(-)와 인구천명당 공무원의 수(+), 문화체육 변수로서 인구십만명당 문화시설의 수(+), 그리고 인구십만명당 체육시설의 수(-)와 같은 6개 변수가 파악되었다. 독립변수의 귀속 영역별로 지역경제 변수 두 개는 모두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지만 행·재정변수는 두 개 모두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서 재정자립도는 제2모형과 제3모형에서 공통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 상황이 바뀌더라도, 즉 인터넷 이용률이나 공무원 수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변함없이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네 개 변수는 환경변화, 즉 인터넷 이용률이나 공무원 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였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재정자립도와 부의 관계였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일수록 지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의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나치게 높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주관적 건강이라는 관점의 삶의 질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제2모형이나 제3모형 중 한쪽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이용률이 높을수록 주관적 건강이라는 관점에서의 삶의 지표가 높아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환경변화에의 민감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의 수가 많은 광역단체일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Q-5D 영향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부의 관계였다. 이 경우에도 공무원의 수가 많을수록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아진다는 있는 그대로의 해석보다는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위치를 바꾸어 하는 해석의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은 지역일수록 공무원이 오히려 더 많이 투입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십만명당 체육시설의 수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위치를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이 낮은 광역단체일수록 체육시설의 수를 늘이는데 더 많은 투입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두 변수 역시 시간적 선행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영향요인 분석에서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독립변수 10개 중에서 4개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GRDP, 경제활동 참가율, 복지예산비중, 인구천명당 도시공원조성 면적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특이한 사항은 지역경제의 척도가 되는 변수 두 개(GRDP와 경제활동 참가율) 모두 주관적 건강수준과는 무관하다는 점이었다. 지역경제 변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이 지표의 영향요인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 4〉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지표의 영향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상수)	-8.532	-.331	.742	-	74.020	4.026	.000	-	28.693	1.743	.086	-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	1.189	4.175	.000	16.900	-	-	-	.793	4.135	.000**	7.409	
지역	GRDP	.019	.353	.725	2.097	-.020	.336	.738	2.097	.039	.733	.466	2.010
경제	경제활동참가율	.044	.204	.839	2.243	-.165	-.708	.481	2.122	-.092	-.446	.657	1.984
복지	복지예산비중	-.009	-.081	.936	4.497	-.043	-.328	.744	4.477	-.069	-.602	.549	4.159
	십만당복지시설수	.108	.846	.401	2.554	.172	1.217	.228	2.517	.217	1.877	.065*	2.016
행·재정	재정자립도	-.141	-4.594	.000	3.075	-.082	-2.699	.009**	2.413	-.137	-4.399	.000**	3.060
	천명당 공무원수	-1.294	1.854	.068	17.805	-.889	-1.732	.088*	7.806	-	-	-	-
문화 체육	천명당도시공원면적	.032	.529	.598	2.035	.054	.793	.431	2.021	.045	.729	.469	2.010
	십만당문화시설수	.900	2.915	.005	9.651	.453	1.407	.164	8.489	.912	2.902	.005**	9.647
	십만당체육시설수	-.394	-4.453	.000	8.667	-.097	-1.656	.102	3.044	-.316	-3.991	.000**	6.719
(적합도)	F=4.263, prob.=.000, R=.618 R <sup>2</sup> =.382, Adj R <sup>2</sup> =.292				F=2.268, prob.=.027, R=.475 R <sup>2</sup> =.226, Adj R <sup>2</sup> =.126				F=4.208, prob.=.000, R=.593 R <sup>2</sup> =.351, Adj R <sup>2</sup> =.268				
Durbin-Watson Values		1.712				1.615				1.632			

\*: p<0.10; \*\*: p<0.05; \*\*\* p<0.01

#### 4. 우울감 경험을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우울감 경험율은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슬픔이나 절망감 등을 경험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이 높으면 우울감이 높다. <표 5>의 모델 1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률과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나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모델 2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를 제외한 모델 3과 같은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빈왓슨 검사 및 화이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 모형 모두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중공선성과 자기상관성의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후 모델 2와 모델 3의 분석결과 우울감 경험율의 영향요인은 GRDP(-), 복지예산비중(-), 그리고 복지시설의 수(-)와 같은 세 개 변수였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제1모형에서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공무원 수는 제2모형과 제3형 어느 곳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파악되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종속변수와 관계가 있는 변수가 함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제2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와 제3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따라서 GRDP, 복지예산비중, 그리고 복지시설의 수는 외부환경의 변화가 있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세 변수 모두 종속변수인 우울감 경험율과 부의 관계였다. 따라서 GRDP가 높을수록,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복지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우울감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GRDP는 지역경제의 대표 변수이고, 복지시설과 복지예산은 지역복지의 대표변수들이다. 지역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 저감이라는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복지시설이나 복지예산을 포함한 지역복지의 수준이 높아지면 우울감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5〉 우울감 경험을 지표의 영향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상수)	.022	.002	.998	-	8.152	1.397	.000	-	12.369	2.142	.036	-	
정보화	.117	1.169	.247	16.900	-	-	-	-	-.014	-.211	.834	7.409	
지역 경제	GRPDI	-.111	-5.937	.000**	2.097	-.111	-5.916	.000**	2.097	-.104	-5.619	.000**	2.010
	경제활동참가율	.081	1.062	.292	2.243	.060	-.811	.420	2.122	.035	.490	.626	1.984
복지	복지예산비중	-.125	3.037	.003**	4.497	-.128	-3.115	.003**	4.477	-.145	-3.604	.001**	4.159
	십만당복지시설수	-.229	-5.087	.000**	2.554	-.223	-4.970	.000**	2.517	-.193	-4.753	.000**	2.016
행·재정	재정자립도	.003	.283	.778	3.075	.009	.929	.356	2.413	.004	.401	.690	3.060
	천명당 공무원수	.429	1.748	.085*	17.805	.214	1.314	.193	7.806	-	-	-	-
문화 체육	천명당도시공원면적	-1.008	-.366	.715	2.035	-.006	-.269	.789	2.021	-.004	-.169	.866	2.010
	십만당문화시설수	-.070	-.644	.522	9.651	-.114	1.116	.268	8.489	-.066	-.600	.550	9.647
	십만당체육시설수	-.016	-.501	.618	8.667	.014	.742	.461	3.044	.010	.368	.714	6.719
(적합도)	F=12.584, prob.=.000, R=.751 R <sup>2</sup> =.564, Adj R <sup>2</sup> =.501				F=9.706, prob.=.000, R=.745 R <sup>2</sup> =.555, Adj R <sup>2</sup> =.498				F=13.503, prob.=.000, R=.738 R <sup>2</sup> =.554, Adj R <sup>2</sup> =.486				
Durbin-Watson Values		1.478				1.365				1.415			

\*: p<0.10; \*\*: p<0.05; \*\*\* p<0.01

인터넷 이용률과 문화체육 변수는 우울감 경험율과는 무관하였다. 특히 사항은 문화체육 변수 3개 모두 우울감 경험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에 공원이 많거나,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이 많으면 우울감 해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가정은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5.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의 영향요인 분석

스트레스 인지율은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사람의 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 분율이 높으면 스트레스도 높다. 스트레스 경험율 영향요인 분석을 위해 <표 6>의 모델 1처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인터넷 이용률과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률을 제외한 모델 2와 인구 천명당 공무원의 수를 제외한 모델 3과 같은 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인지율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디빈슨 검사와 화이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기상관 및 이분산성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스트레스 인지율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고 자기상관 문제가 없는 모델 2와 모델 3의 분석 결과 스트레스 영향요인으로 정보화 변수로서 인터넷 이용률(+), 지역 경제 변수로서 GRDP(-), 지역복지 변수로서 복지예산 비중(-), 행·재정 변수로서 재정자립도(+)와 천명당 공무원의 수(-), 문화체육 변수로서 십만명당 체육시설의 수(-)와 같은 6개 변수가 파악되었다.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는 제1모형에서는 GRDP와 복지예산 비중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한 제2모형 및 제3모형을 합치면 6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율의 분석에서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한 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일정 방향으로 모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스트레스 경험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오히려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중공선성이 미치는 영향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 중에서 제2모형과 제3모형에서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GRDP였다.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GRDP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적게 느끼고, GRDP가 낮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GRDP는 우울감 경험율에서도 이와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따라서 지역경제 수준은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공통적인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GRDP를 제외한 나머지 5개 변수는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관계는 있지만 상황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수였다. 한쪽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이용률(+), 복지예산비중(-), 재정자립도(+), 천명당 공무원수(-), 그리고 체육시설의 수(-)였다.

이 5개 변수 중에서 스트레스 경험율과 부의 관계에 있는 변수는 복지예산비중, 천명당 공무원의 수, 그리고 체육시설의 수였다. 복지예산의 비중이 높거나, 공무원의 수가 많거나, 그리고



지역내 체육시설의 수가 많을수록 광역단체 거주 지역주민의 스트레스 해소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복지예산의 비중은 우울감 경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측면의 삶의 질의 중요한 영향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률이 높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단체일수록 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인터넷 이용률과 재정자립도는 지역주민의 삶의 스트레스 요인이 된다는 결과였다. 인터넷 이용률이 높으면 EQ-5D나 주관적 건강수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반하여 스트레스 인지율은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활용한 10개의 변수 중에서 경제활동 참가율, 복지시설의 수, 도시공원면적, 문화시설의 수는 스트레스 인지율과는 무관한 변수로 파악되었다. 복지시설의 수는 우울감 경험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지만 스트레스 인지율 저감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스트레스 인지율 지표의 영향요인

변수	모형 1				모형 2				모형 3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B	t	유의 확률	VIF
(상수)	15.326	1.043	.300	-	30.162	3.183	.002	-	1.049	.113	.910	-
정보화												
인터넷 이용률	.214	1.137	.192	16.900	-	-	-	-	.365	3.389	.001***	7.409
지역												
GRDP	-.105	-3.478	.001***	2.097	-.105	-3.454	.001***	2.097	-.113	-3.797	.000***	2.010
경제												
경제활동참가율	.134	1.088	.281	2.243	.096	.800	.427	2.122	.186	1.601	.114	1.984
복지												
복지예산비중	-.124	-1.853	.068*	4.497	-.130	-1.936	.057*	4.477	-.101	-1.564	.122	4.159
십만당복지시설수	.104	1.427	.158	2.554	.116	1.587	.117	2.517	.062	.957	.342	2.016
행·재정												
재정자립도	.018	1.017	.313	3.075	.029	1.828	.072*	2.413	.016	.927	.357	3.060
천명당 공무원수	-.496	-1.248	.216	17.805	-.888	-3.359	.001**	7.806	-	-	-	-
문화												
천명당도시공원면적	-.041	-1.167	.247	2.035	-.037	-1.055	.295	2.021	-.045	-1.310	.195	2.010
십만당문화시설수	.255	1.447	.153	9.651	.174	1.050	.298	8.489	.250	1.416	.161	9.647
십만당체육시설수	-.049	-.972	.334	8.667	.004	.149	.882	3.044	-.079	-1.769	.081*	6.719
(적합도)	F=7.805, prob.=.000, R=.729 R <sup>2</sup> =.531, Adj R <sup>2</sup> =.463				F=8.391, prob.=.000, R=.720 R <sup>2</sup> =.519, Adj R <sup>2</sup> =.457				F=8.431, prob.=.000, R=.721 R <sup>2</sup> =.520, Adj R <sup>2</sup> =.458			
Durbin-Watson Values	2.072				1.983				2.062			

\*: p<0.10; \*\*: p<0.05; \*\*\* p<0.01

## 6. 요약

EQ-5D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은 긍정적인 삶의 질의 단면을 측정하는 지표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삶의 질의 단면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네 가지 단면의 지역별 수준분석에서 울산이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그 다음이 대전과 전남이었다. 단면 별로 보면EQ-5D에 관한 한 6년간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기록한 지역은 대전 4번, 울산 2번, 그리고 서울 1번이었다. 도 단위의 광역단체는 하나도 없어 기본생활 관련 삶의 질은 광역시가 도 단위보다 우위에 있었다. 스트레스에 관한 한 6년간 전남이 4번, 경남과 울

산이 각각 1번 가장 낮은 지역 순위에 올랐다. 광역시 중 울산만 포함되었다. 주관적 건강에 관한 한 도 단위 지역이 광역시 지역보다 높은 지역 순위에 더 많이 올랐고, 우울감에 관한 한 광역시 지역이 도 단위 지역보다 낮은 지역 순위에 더 많이 올랐다.

영향요인 분석 결과 네 가지 삶의 질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분석 결과는 삶의 질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영향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삶의 질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발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네 가지 삶의 질의 단면 중에서 EQ-5D 영향요인은 인터넷 이용률과 도시공원면적이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의 영향요인은 인터넷 이용률, 복지시설의 수, 그리고 문화시설의 수였다. 우울감 경험율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GRDP, 복지예산 비중, 지역복지 시설의 수였다. 끝으로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변수로 GRDP, 복지예산 비중, 공무원의 수, 그리고 체육시설의 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였지만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위치를 바꾸어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변수들은 시간적 선행성이 전제되지 않아 삶의 질 영향요인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하여 영향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의 네 가지 단면 모두는 아니지만 일부나마 긍정적 영향을 미친 변수로는 지역경제를 대표하는 GRDP와 지역복지를 대표하는 복지예산의 비중이었다. 이 두 변수는 삶의 질의 정신적 단면으로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활용된 우울감 경험율이나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대표적 영향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삶의 질에는 여러 가지 단면이 있는데 하나의 단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단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도 발견하였다. 인터넷 이용률, 복지시설의 수, 공무원의 수, 그리고 체육시설의 수였다. 인터넷 이용률은 EQ-5D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을 높이는 변수였으나, 스트레스 인지수준을 높이는 변수로 파악되었다.

삶의 질의 단면 사이에 상반되는 영향을 보인 변수 중에서 관계의 방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현실적합성이 낮은 경우도 있었다. 복지시설의 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변수로 파악되었지만, EQ-5D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수는 EQ-5D와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스트레스 인지율을 낮추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체육시설의 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스 저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세 변수 모두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그대로 해석하면 현실적합성이 낮아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위치를 바꾸어 해석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부분에 관한 한 향후 심층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사실 중 하나는 재정자립도는 기대와는 달리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었다. 이 변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과 부의 관계였으며, 스트레스 수준을 높이는 변수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과정 그 자체가 지역주민에게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또한 광역단체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삶의 질에 관한 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EQ-5D에서 부의 관계를 보일 뿐 다른 어떤 삶의 질의 단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였다.

## V. 결론

삶의 질 영향요인은 하나로 특정할 수 없었다. 네 가지 단면 중 지역별 특성이 나타나는 단면도 있었다. 도시형 광역단체(광역시)는 농촌형 광역단체(도)에 비해 EQ-5D가 높았고, 농촌형은 도시형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삶의 질의 단면의 다양성만큼 영향요인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네 단면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발견되지 않았다. 네 가지 단면 중 다른 단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단면에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GRDP와 복지예산 비중뿐이었다. 이 두 변수는 정신건강 관련 삶의 질, 즉 우울감 및 스트레스 저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자립도나 공무원의 수를 포함한 행·재정 변수는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이나 공무원 수를 늘이는 것은 지역주민의 삶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복지지출에 관한 한 큰 정부, 공무원의 수에 관한 작은정부 필요

문화체육 관련 변수는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지만 기대만큼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도시공원 면적은 EQ-5D, 문화시설의 수는 주관적 건강수준 인지율, 그리고 체육시설의 수는 스트레스 저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세 변수 중 어떤 변수도 우울감 경험율 저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도시공원 면적도 EQ-5D에만 영향을 미쳤을 뿐 다른 삶의 질의 단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문화시설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체육시설의 수는 스트레스 인지율의 저감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주관적 건강수준과는 부의 관계로 나타나 질 높은 삶의 질의 영향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삶의 질의 제고방안을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EQ-5D 수준이 높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반면 도단위는 스트레스가 낮은 반면에 EQ-5D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삶의 질 제고 방안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역시는 스트레스 인지율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복지예산의 비중을 높이고, 체육시설의 수를 늘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반면에 도는 인터넷 이용율과 도시공원조성면적을 늘임으로써 EQ-5D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광역시나 도와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복지예산의 비중을 높이고, 공무원의 수를 줄임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 복지지출에 관한 한 큰 정부, 공무원의 수에 관한 작은 정부라는 인식이 삶의 질의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나 공무원의 수와 같은 행·재정 역량을 높이는 전략은 지역주민의 삶에는 오히려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역주민의 우울감 경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예산의 비중이나 복지시설의 수를 늘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늘인다고 해서 우울감이 낮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흔히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복지시설, 문화시설, 혹은 체육시설을 늘이는 방안을 생각하기 쉬운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이 세 시설을 늘인다고 해서 반드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고명철·최상욱. (2012). 삶의 질(QoL) 연구의 행적학적 함의와 제언. 「한국행정학보」, 46(4): 103-126.
- 구교준·임재영·최슬기. (2014). 소득과 삶의 역량에 따른 행복 결정요인 연구. 「한국행정학보」, 48(2): 317-339.
- 김도희. (2002). 삶의 질 중심의 행정환경변화와 행정조직의 변천: 울산광역시 행정조직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1(2): 1-25.
- 문경주. (2014).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 이지은·이재완. (2014).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의식 분석: Q방법론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8(1), 515-541.
- 이현국·이민아. (2014).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한국행정학보」, 48(2): 293-315.
- 질병관리본부. (2011). 건강관련 삶의 질 특정도구(EQ-5D)의 타당도 평가. 질병관리본부.
- 통계청. (2014). 지역통계.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ATITLE01&parmTabId=M\\_02\\_01\\_01#SubCont](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2List.jsp?vwcd=MT_ATITLE01&parmTabId=M_02_01_01#SubCont).
- 한석태. (2008). 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의 비교. 「한국행정학보」, 42(3), 441-461.
- 홍두승. (1997). 직업군인과 삶의 질: 정책대안의 모색. 「한국정책학회보」, 6(2), 173-193.
- Alvarez-Diaz,, Ángel, Gonzalez, Lucas, & Radcliff, Benjamin. (2006). The politics of happiness: On the political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in the American state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s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 Anderson, R. T., Aaronson, N. K. & Wilkin, D. (1993). Critic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assessment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2(6), 369-395.
- Bache, Ian. (2013). Measuring quality of life for public policy: an idea whose time has come? Agenda-setting dynamics in the European Union, *Journal of European Public Policy*, 20(1): 21-38.
- Becker, Gary S., Philipson, Tomas J., Soares, Rodrigo R. (2003). The quantity and quality of life and the evolution of world inequality. Working Paper. Cambridge, MA: The U. 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Bjørnskov, Christian, Dreher, Axel, Fischer, Justina A. V. (2007). The bigger the better? Evidence of the effect of government size on life satisfaction around the world. *Public Choice*, 130(3-4), 267-292.
- Burekhardt, Carol S., Anderson, Kathryn L., Archenholtz, Brigitha, & Hägg. Olle (2003). The Flanagan quality of life scale: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1:59.

- Burström, Kristina, Johannesson, Magnus, & Diderichsen, Finn. (2001). Swedish population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results using the EQ-5D. *Quality of Life Research*, 10(7), 621-635.
- Contanza, R. Fisher, B., Ali, S., Beer, C, Bond, L., Boumans, R., Danigelis, N. L., Dickinson, J., Elliott, C., Farley, J., Gayer, D. E., Glann, L. M., Hudspeth, T. R., Mahoney, D. F., McCahill, L., McIntosh, B., Reed, B., Rizvi, A. T., Rizzo, D. M., Simpatico, T., & Snapp, R. 2007. An integrative approach to quality of life measurement, research, and policy. *Survey and Perspectives Integrating Environment and Society*, 61, 267-276.
- Cogburn, Jerrell D., & Schneider, Sandra K,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State Government Performance and State Quality of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6(12), 1337-1354.
- Daly, E. J., Trivedi, M. H., Wisniewski, S.R., Nierenberg, A. A., Gaynes, B. N., Warden, D., Morris, D. W., Luther, J. F., Farabaugh, A., Cook, I., & Rush, A. J. (2010).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depression: A STAR\*D report. *Annals of Clinical Psychiatry*, 22(1): 43-55.
- Deller, Steven C., Tsai, Tsung-Hsiu, Marcouiller, David W., & English, Donald B. K. (2001). The role of amenities and quality of life in rural economic growth.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3(2): 352-365.
- Diener, ED., & Diener, C.. (1995). The wealth of nations revisit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The wealth of nations revisited: Income and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3): 275-286.
- Diener, ED, & Suh, Eunkook. (1997). Measuring quality of life: Economic, social, and subjective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40(1-1): 189-216.
- Economist. 2005.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quality-of-life index. Retrieved from [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http://www.economist.com/media/pdf/QUALITY_OF_LIFE.pdf).
- European Commission. (2009). European Commission (2009)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 GDP and beyond: measuring progress in a changing world', Com(2009) 0433 final,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available at <http://eur-lex.europa.eu/Notice.do?checktexts=checkbox&val=499855>.
- EuroQol Group (2009). EQ-5D user guide: Basic information on how to use EQ-5D. Retrieved from [http://www.euroqol.org/fileadmin/user\\_upload/Documenten/PDF/User\\_Guide\\_v2\\_March\\_2009.pdf](http://www.euroqol.org/fileadmin/user_upload/Documenten/PDF/User_Guide_v2_March_2009.pdf).
- Felce, David, & Perry, Jonathan. (1995). Quality of life: Its definition and measurement. *Research in Developmental Disabilities*, 16(1), 51-74.
- Flanagan, J. C. (1982). Measurement of quality of life: Current state of the ar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63(2), 56-59.
- Gabriel, Stuart A., Matthey, Joe P., & Wascher, William L. (2003). Compensating differentials and evolution in the quality of life among U. S. states. *Regional Science and Urban Economics*,

- 33(5), 619-649.
- Greene, William H. (2011). *Econometric Analysis*, (7th ed.). New York, NY: Prentice Hall.
- Guyatt, G. H., Feeny, D. H., & Patrick, D. L. (1993). Measur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18(8): 622-629.
- Gyourko, Joseph, & Tracy, Joseph. (1991), The Structure of local public finance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9(4), 774-806
- Hagerty, M. R., Cummins, R. A., Ferriss, A. L., Land, K., Michalos, A. C., Peterson, M., Sharpe, A., Sirgy, J., & Vogel, J. (2001). Quality of life indexes for national policy: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Social Indicators Research*, 55(1): 1-96.
- Jones, E. Terrence. (1974). The impact of crime rate change on police protection expenditures in American Cities. *Criminology*, 11(4), 516-524.
- Kraut, Robert, Patterson, Michael, Lundmark, Vicki, Kiesler, Sara, Mukophadhyay, Tridas, Scherlis, Willia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Kind, Paul, Dolan, Paul, Gudex, Claire, & Williams, Alan. (1998). Variations in population health status: results from a United Kingdom national questionnaire survey. *BMJ*, 316(7133): 736-741.
- LaRose, Robert, Eastin, Matthew S., & Gregg, Jennifer. (2001). Reformulating the Internet paradox: Social cognitive explanations of Internet use and depression. *Journal of Online Behavior*, 1(2): No Pagination Specified.
- Law, Mary. (2002). Participation in the occupations of everyday lif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 640-649.
- Leung, Louis, & Lee, Paul S. N. (2005). Multiple determinants of life quality: The roles of Internet activities, use of new media, social support, and leisure activities. *Telematics and Informatics*, 22: 161-180.
- Masthoff, Erik D., Trompenaars, Fons. J., Van Heck, Guus L., De Vries, Jolanda, & Hodiament, Paul P.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quality of life in psychiatric outpatients. *Stress and Health*, 22: 249-255.
- Mauceri, Manuela, Licciardello, Orazio, & Di Marco, GGraziella. (2014). Psychosocial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among elders: a research of the Italian and Spanish elderly.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6:1651-1655.
- Ram, Rati. (1982). Composite indices of physical quality of life, basic needs fulfillment, and income: A 'principal component' representa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2): 127-247.
- Rossi, P. H., Lipsey, M. W., & Freeman, H E., (2004). *Evaluation: A System approa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Sharon, Landesman. (1986). Quality of life and personal life satisfaction: Definition and measurement issue. *Mental Retardation*, 24(3), 141-143.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1-4): 475-492.
- Skevington, S. M., Lotfy, M., & O'Connell, K.A. (2004).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QOL-BREF quality of life assessment: Psychometric properties and results of the international field trial. A Report from the WHOQOL Group. *Quality of Life Research*, 13(2): 299-310.
- Veenhoven, Ruut. (2000). Well-being in the welfare state: Level not higher, distribution not more equitable, *Journal of Comparative Policy Analysis: Research and Practice*, 2(1), 91-125.
- Veenhoven, Ruut. (2006). How do we assess how happy we are? Tenets, implications and tenability of three theories. The paper presented at conference on 'New Directions in the Study of Happiness: United States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s', University of Notre Dame, USA, October 22-24.
- Ventegodt, Søren, Andersen, Niels Jørgen & Merrick, Joay. (2003). Quality of life philosophy VI. the concepts. *The Scientific World Journal*, 3, 1230-1240.
- Weede, Erich. (1993). The impact of democracy or repressiveness on the quality of life,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rates. *International Sociology*, 8(2): 177-195.
- Wish, Naomi Bailin. (1986). Are we really measuring the quality of life? Well-being has subjective dimension, as well as objective ones.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Sociology*, 45(1), 93-99.
-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WHOQol Measuring quality of life. World Health Organization's Division of Mental Health and Prevention of Substance Abuse. Retrieved from [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http://www.who.int/mental_health/media/68.pdf).
- Young, Craig, & Kaczmarek, Sylwia. (2000). Local government, local economic development and quality of life in Poland. *GeoJournal*, 50: 225-234.

---

허만형(許萬亨): 미국 Univ. of Colorado, Denver에서 "Economic Self-Sufficiency: A Study of Southeast Asian Refugees in Colorado"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관심 분야는 복지정책, 정책평가, 정보화정책이다. 주요논문으로는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에 실린 "A comparative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ension plans and individual savings in Asian countries from an institutional point of view" 및 『한국정책학회보』에 실린 "연금제도개혁의 국가간 횡단면적 비교분석: "보편적" 제도유형 탐색"이다. 주요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론』과 『통계분석론』이 있다(mhhur@cau.ac.kr).

Abstract

## Exploring the Influential Factors of the Quality of Life in the Provincial Level Local Governments

Hur, Mann Hyung

This study explores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s' determinants of quality of life by conducting four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with pooled data compiled by Korea's National Statistical Office from 2008 to 2013. For this study, four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 ED-5Q,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and stress – were employed as dependent variables, and ten independent variables were employed. Thes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lected from five policy areas including regional Internet usage, regional economics, regional welfare, administrative capacities, and regional cultural and park and recreation. Each dimension of quality of life showed its own set of determinants respectively. No cross-dimensional determinants were found. Only a few independent variables were associated with a couple of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Some variables were found to be positive predictors of one dimension of quality of life as well as negative ones of other dimension(s) of quality of life. Of ten independent variables, both GRDP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were found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of quality of life. However, both number of local government employees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s could be described as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Key Words: Local government; quality of life; happiness